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성진	학번	
이메일	Ksjin1014@gmail.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Kentucky / MPP	(국가) 미국
기 간	2018.1-2018.12(1년)	[귀국일: 2018년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2월 일

신 청 인: 김 성 진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켄터키대학이 있는 켄터키주의 렉싱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틀란타, 클리브랜드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전 미국 들어가는 첫날, 우연치 않게 액땀을 하게 되었는데요, 애틀란타 공항에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12시간 동안 체류하고 인근 호텔 투숙 후 그 다음날 렉싱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무탈하게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틴스쿨 내의 한국인 담당 교수님이신 김두옥 교수님께서 세심하게 정착을 준비해 주시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정착을 도와주는 선생님 한 분을 고용하여 그 분께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순조로운 정착이 될 수 있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주 만족스러운 미국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초 인터내셔널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렉싱턴은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백인이 많고 교육수준도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는 작은 양으로 자주 오는 기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렉싱턴의 남서쪽에 위치한 버몬트 지역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 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로사파크 초등학교"가 렉싱턴 시에서는 가장 우수한 초등학교라서 아이들 교육에 매우 좋은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사파크 초등학교는 아침 7시40분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주어야 하고, 오후 2시30분에 데리러 가야 합니다. 저는 버몬트 팜스 아파트에서 살았고 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및 전기료, 수도료, 하수료는 한달에 약 \$1,300 이하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버몬트 지역이 예전 신도시로 계획개발 되다보니 버몬트 팜스 아파트 주변에는 "크로거"(대형 식료품 마트)와 우체국, YMCA, 그리고 버몬트 도서관이 있어 생활기반시설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대학원의 공공정책대학원인 "마틴스쿨"은 매우 우수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정책 분야 대학원 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우수한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캠퍼스도 면제된 조건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업에 큰 부담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진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 미국 언론에도 종종 교수님의 업적에 대한 인터뷰도 실리곤 합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공공정책에 대한 정책과정 수립, 과정 및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초과목들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SPSS를 이용한 반면, 켄터키에서는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TATA를 주로 쓰고 그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는 강의도 있는데, 매우 흥미로웠고 실제로 STATA가 미국의 많은 논문에서 가장 선호되는데 비하여 국내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도가 적다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로 STATA는 사회 경제적 현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우수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켄터키 대학원의 마틴스쿨에서는 자기가 재량으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KDI학생을 위해서 특정 과목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봄학기 3과목, 가을 학기 4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각 수업은 통계학, 경제학 등의 기초과목과 조직론, 정책론 등의 주요과목이 있으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수한 커리큘럼이다 보니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KDI에서 그랬듯이 각 과목마다 성의를 다한다면 학위수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교수진들도 우리 학생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기숙사는 없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거지를 정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변의 자연경관도 좋았고, 쇼핑도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렉싱턴에는 H마트가 없어서 한국음식 재료를 저렴하게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동양마트와 서울마켓이라는 한인마트가 있기는 하여 식자재 구입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내인 니콜라스빌에 위치한 코스트코, 월마트와 크로거를 많이 이용했으며, 가전제품은 베스트바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쇼핑하고 조금 사용한 물건도 환불이 자유로운 점이 우리와 아주 큰 문화차이였습니다. 또한, 식자재가 한국과 비교하여 아주 저렴한 편이어서 생활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주 갔던 음식점으로는 "텍사스"의 스테이크, "버팔로왕"의 치킨, 및 "레드 랍스터"의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맛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어디가나 스테이크가 가격대비 아주 훌륭합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여기에 학위과정 및 비학위 과정으로 오신 분들은 취미생활로 와이프와 함께 골프도 많이 즐기시는 편이었는데, 다들 너무 재미있어 하시었습니다. 저 또한 아주 즐겁고 저렴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와이엠씨에이에 등록하여 수영과 헬스를 할 수 있어서 건강증진에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켄터키 지역이 미국의 중앙부라서, 비행기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등을 여행하였고, 또 텍사스도 여행하였습니다. 여름방학 3개월동안은 렌트카로 서부, 알래스카, 중부, 캐나다 및 멕시코 칸쿤을 저렴하게 여행하였고, 겨울 귀국 전에는 바하마의 크루즈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내 각 주의 특색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 외국 교육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켄터키는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켄터키를 사랑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처음에 입국했을 때는 통관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약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통관절차를 시행합니다. 해외 생활은 "구글맵"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호텔예약은 호텔스닷컴으로 하였고 중저가 호텔로는 "컴포트 인 또는 베스트 웨스턴 등"을 추천드립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분은 켄터키대학원 마틴 스쿨의 MPP과정 선택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켄터키주 렉싱턴 시에서의 생활에 온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만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원(켄터키대학원 마탄스쿨)은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학교이며 교수님들도 너무 좋고 학생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풍을 가진 학교로서, 제가 경험했던 교육기관 중 가장 모범적인 곳이었습니다. 혹시 켄터키 대학원이 있는 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미국내 위치라든지 학교의 수준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점 참고하여 켄터키를 선택하시면 모든 면에서 후회가 없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253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광우	학번	
이메일	ckwkorea@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Kentucky	(국가) 미국
기 간	2018. 1 ~ 2018. 12	[귀국일:2018년12월2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월 일

신 청 인 : 최광우 (인)

2년차 해외대학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필자도 학위과정을 이수할 것인지, 또 어떤 대학에서 2년차 생활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본 보고서가 켄터키 렉싱턴을 2년차 생활지역으로 검토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University of Kentucky(UK)는 켄터키주의 렉싱턴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렉싱턴은 UK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개발된 도시로 우리나라와 기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Bluegrass라는 별칭에 맞게 도시외곽에 아름다운 초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연중 주기적으로 내리는 비가 큰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을 특정하기 힘들다. 겨울에는 가끔 영하 10도 정도의 한파가 오는 날도 있지만 영상의 온화한 기후가 많은 편이다.

렉싱턴은 미국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입국시 시카고, 애틀랜타, 댈러스 등을 경유해서 입출국을 하는 편이다. 시카고와 애틀랜타까지 차량으로 이동시 약 6시간정도 걸리며, 동부관광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동부 몬트리올, 토론토, 오타와, 퀘벡을 자동차로 여행하기에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다만 서부여행시는 자동차로 이동에만 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렉싱턴에는 쇼핑할 수 있는 매장들이 충분히 있어 웬만한 쇼핑은 렉싱턴 내에서 대부분 가능하다. 특히 Macy's 백화점이 있어 온라인구매후 반품 등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도시 주변에 월마트, Kroger가 있어 식료품,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Costco는 1개 매장이 있고 Target, Tjmaxx, Homegoods, Marshall 등도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쇼핑매장이다. 한국음식과 간단한 한국 물건들은 서울마트와 동양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애틀랜타에 있는 H마트의 물건에 비해 품목수가 한정적이고 살짝 비싼편이다. 배추나 무우, 찜장, 쌀, 라면 등 식재료 구입시 유학생들이 애용하는 편이다. 국산 소주는 Liquor barn이라는 전문 술판매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입가능한데 한국보다 5배이상 가격에 판매된다. 켄터키는 Bourbon Whisky가 유명하고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맥주가 많아 저렴한 가격에 구입가능하다. 식료품 구입비, 의류가격이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학교와 관련하여 몇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자녀들이 적응하기 쉽지만 미국친구들을 사귀기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영어회화 연습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어느정도 준비했다면 한국아이들이 적은 지역학교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필자는 미들스쿨에 아이를 입학시켰는데 한국학생들이 없어 처음에는 좀 힘들어 했지만 나중에는 잘 적응해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ESL수업위주로 듣는데 현지 미국학생들이 듣는 일반 수업들도 들어야 미국학교 생활의 여러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어느정도 적응하고 수

업내용이 쉽다면 난이도 있는 수업으로 조정을 카운셀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 중고등 학생들의 경우 학교평가 등급이 어느정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초등학생은 집가까운 어느 공립학교를 가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Great schools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학교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에는 렉싱턴의 어느 공립 Elementary school을 가더라도 영어공부와 미국 학교생활을 경험하는데는 차이가 없을듯 하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필자는 학위과정 보다는 직무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IPPMI에서 제공하는 수업프로그램을 들었는데 ESL수업과 매주 목요일 정책이슈별 강의, 비정기적으로 Martin school 교수들의 특강, 기관방문 등이 주를 이룬다. ESL 수업은 미국인 강사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수업참여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수업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여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 강도를 조절해 볼 수 있다. 나머지 강의도 학생들이 주문에 따라 주제를 달리 할 수 있다. 강의의 수준은 KDI의 일반강의 보다는 미국의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므로 난이도는 수월한 편이다. 한국 학교에서의 잘 짜여진 전문화된 강의가 아니므로 필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때때로 주문을 하는것도 좋다고 본다. IPPMI에서 제공하는 수업들만 들어도 자유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일반 대학원의 수업들도 원한다면 IPPMI에 요청해서 수강을 해 볼 수 있다. 필자는 학부수업을 호기심차원에서 역사와 경제학관련 과목을 청강한 적이있다. 학부생들의 수업스타일을 볼 수 있었고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별다른 것을 없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학위과정은 정해진 수업을 이수해야하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으므로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에 벅차다고 한다. 직무과정은 수업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정책강의들을 듣고 싶다면 UK에서 열리는 각종 컨퍼런스나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보기를 권한다. 필자는 학교에서 준비한 특별강연회 등에 기회가 될 때마다 참석해 보았는데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UK 주변에 가족들과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임대조건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렉싱턴의 서부쪽인 버몬지역에 거주하는데 월 1천불의 렌트비에 자녀학교, Grocery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UK까지는 15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가능하고 UK는 유료 주차를 해야하므로 카풀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한국분들이 많이 살아 정보공유와 현지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반면, 한국에서의 대인관계 등 생활들이 미국에서도 계속된다는 점도 있다. 한국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다보니 Elementary School에서 한국 학생들이 같은 반에 몰리게 되는 것도 단점일 수 있다. 필자는 렉싱턴의 남쪽지역인 Merrick Place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한국분들이 3~4가구 정도 거주하는 조용한 곳이다. 미국 목조 주택이 단점인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기 위해 이지역을 선택했다. 렌트비는 2bed, 2bath 월 1천불 내외이다. 렉싱턴의 토박이들이 은퇴하고 장기 임대로 거주

하는 경우도 많다. 단지내에 큰 나무들이 심어져 조경이 아름다운 편이다. 여름철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클럽하우스에서 입주민들은 위해 파티나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는것도 재미있다. 필자는 크리스마스 디너파티에 참석해 보았는데 생소한 현지 음식도 맛보고 이웃들과 친교의 시간도 갖을 수 있었다. 미국식 파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Reserve at Merrick 아파트도 근처에 있는데 타운하우스 유형의 Unit을 제공하고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UK의 International center에서 유학생들과 배우자들을 위해 무료ESL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참석인원이 좀 많은 편이고 도서관에서도 무료 클래스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볼 수도 있다. 잘 선택하면 유료에 버금가는 무료 클래스가 많다. 렉싱턴 주변에는 퍼블릭 골프코스가 많아 저렴한 비용에 운동을 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노인들과 서민들을 위한 운동이란 느낌이 들며 풀코스를 전동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완주하는 분들이 많다. 처음에는 벅차지만 익숙해지면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한국분들 외에도 기회가 되면 은퇴한 미국 할배들과 골프를 즐겨보시길 권한다. 주한 미군으로 한국과 인연이 있는 분들도 꽤 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KDI에서 1년차 공부도 바쁘지만 2년차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낸다고 본다. 특히 자녀들의 영어는 한국에서 준비해 간 만큼 현지에서 실력에 영향을 크게 준다. 한국에서 준비없이 오신 유학생들은 영어과외를 현지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직무과정은 학위과정에 비해 시간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좀 더 있다고 본다. 필자는 1년을 정말 꽉 채워 알차게 활용하고 온 듯한 느낌이다. 한국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렉싱턴에 그 중에서 유학생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살아 본것도 잘 한 일중에 하나였다. 신용카드 신청 등 여러가지 일들을 직접해야 하는 상황이 나중에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나중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매니저, 뱅커 등 현지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UK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보길 바란다. 필자는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어 관련기관에서 하는 쿂�클래스에 참가해 보았는데 다른나라 음식을 조리해보고 나중에 요리한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도 있었다.

자신의 가족의 상황에 맞게 현지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길 바란다. 여행도 자신의 아이 연령과 선호도를 고려해 가는 것이 좋다. 남들 간다고 준비없이 욕심만 앞세우고 여행길에 올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두 아이가 남자아이이고 미들스쿨에 다녀 고학년이라 여행지를 서부 내셔널파크와 시카고, 워싱턴, 뉴욕 증대도시 위주로 많이 다녀왔다. 아이들이 관심없는 명문대학 투어 등은 생략하고 좋아하는 장소위주로 계획해서 다녀왔다. 시차도 적응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하자마자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잠만 자다 나온 가족들도 있었다. 물론 그 또한 추억거리일 것이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UK의 경우 한국인 교수분과 정착서비스를 도와주는 한국분이 있어 필요한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학생들과 현지에 계신분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유학생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렉싱턴에 처음 도착해서 불편한 것이 참 많았다. 하지만 1년을 살아보니 그 생활도 편해졌다. 바라보는 시각을 미국 기준으로 바꾸면 현지 적응이 훨씬 편해진다. 현지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은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선배들의 경험담을 잘 들어보면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렉싱턴은 아담한 사이즈의 안전한 도시로 2년차 생활지로 추천할 만 하다.

